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 소외된 이웃에게 200만 원 기부금 기탁

呂 추홍식 | ㉠ 승인 2024.12.18 14:50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는 18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기부금 200만 원을 성주군에 전달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는 18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기부금 200만 원을 성주군에 전달했다.

행사는 성주군청 군수실에서 이병환 성주군수와 이돈문 성주지사장,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사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에 관내 취약계층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자 기부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돈문 성주지사장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로 직원들과 함께 이번 기부금 기탁을 결정했다.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